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동유럽 신흥 시장 소개, 체코
경제 이슈: 미국 출구전략과 파급 영향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인생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

세심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Book Review

메이커스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사람들)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전세금 부담 등으로 소비자심리 악화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02(100이 기준)로 전월보다 3p 하락하며 5개월 만에 악화
 - 소비지출전망: 8월 109에서 9월 105로 떨어졌는데 교육비와 의료·보건비의 지출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주거비 지출은 8월 106에서 9월 116으로 큰 폭으로 상승
 - 경제상황인식: 현재경기에 대한 인식은 8월 81에서 9월 77로 3p 하락하며 악화된 반면, 6개월 후인 향후경기에 대해서는 8월 93에서 9월 97로 상승하며 낙관적인 시각이 증가됨
- 향후경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전세금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유지로 금융시장은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감

- 이탈리아 정국 불안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의 경기 지표가 호전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16일 2.87%에서 9월 27일 현재 2.83%로 0.04%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9월 16일 1,081.0원에서 9월 27일 현재 1075.0원으로 6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9월 16일 2,013.4에서 9월 27일 2011.8로 1.6p 하락에 그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9/16	9/27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2.3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8	-0.9	0.8	-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1	1.4	1.3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1	3.1	3.0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198.0	67.7	57.4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67	2.87	2.83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2.8	1,081.0	1,075.0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63.3	2,013.4	2,011.8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9월 16일은 7월, 9월 27일은 8월 수치임.

□ 산업 이슈: 동유럽 신흥 시장 소개, 체코

○ 국가 개요

- 중부 유럽 내륙에 위치한 체코는 '93년 舊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하여 독립
 - 舊 체코슬로바키아는 '89년 무혈혁명을 통해 공산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에 성공하였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국민투표를 거쳐 '93년 분리 독립
 - '04년 주변 10개국과 함께 EU 가입하였으나 유로존에는 미가입
- 체코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인당 소득 수준 보유
 - 체코의 일인당 GDP는 18,300 달러(구매력 기준으로는 27,200 달러)로 주변의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보다 높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서유럽 선진국에 근접

< 체코의 위치 >



< 국가 개요 >

면적	79 천 km2(한반도의 1/3)
수도	프라하(124 만명)
인구	1,050 만명
민족	체코인(94%), 슬로바키아인(2%)
종교	가톨릭(39%), 개신교(6%)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언어	공용어:체코어, 상용어:영어,독어
통화단위	체코 코루나(CZK)
환율	19.57 CZK/USD(연평균)
GDP	1,935 억 달러
1인당 GDP	18,300 달러(구매력기준 27,200 달러)

자료: Czech Statistical Office, Czech National Bank, IMF, KOTRA.

주: 2012년 기준.

○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체코는 경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개선되고 있음

- EU 가입 이후 급성장을 지속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고, 아직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고 실업률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
- (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자동차, IT 산업 등 핵심 제조업 육성
 - EU 가입 이후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경쟁력 향상 도모
 - 자동차, IT 등 핵심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담당

○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

- (성장 잠재력) 해외로부터의 꾸준한 자본 유입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
 -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975 억 달러이고, 일인당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음
 - 물류, 통신, 에너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 또한 중동부 유럽 최고 수준
- (위험 요인) EU 내에 편중된 경제 구조와 정부와 대외 채무의 누적
 - 역내 수출 비중은 평균 86%, 수입 비중은 평균 77%에 이룸
 - 정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8%이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채무 또한 크게 증가

○ 한국의 對 체코 교역

- (무역) 연평균 16.3%의 교역 규모 증가와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
 - 체코의 EU 가입 전후, 한-EU FTA 체결 전후를 기점으로 수출과 수입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

□ 경제 이슈: 미국 출구전략과 파급 영향

- 글로벌 금융위기 졸업 및 경기 회복의 신호탄¹

□ 미국 출구전략 실시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출구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부터 시작되어 금리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미국 경기 회복 속도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출구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출구전략의 경제 파급 영향

- 양적완화 축소는 금융위기 졸업 및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월 구두개입을 기점으로 출구전략은 이미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지금은 양적완화 규모 축소의 시기와 폭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범위 이내의 양적완화 축소는 시장에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G20 글로벌 공조로 급격한 출구전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적완화 축소는 지난 5년간의 금융위기로부터 졸업한다는 의미와 함께 경기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됨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금융시장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르는 파급 영향으로 첫째, 미 달러화의 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전 세계에 공급되는 미 달러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며 그 결과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수출국은 수출로 인한 자국통화 표시 외화수입이 증가한다. 따라서 더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 또한 그 동안 원자재 시장에 유입되었던 자금이 회수되는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40호, 2013.9.17 “미국 출구전략과 파급 영향” 을 요약 정리.

자산재분배 과정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르는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동성 축소가 예상되면서 미국 금리를 중심으로 전세계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 연준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미국 3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채권 보유를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실시가 임박하자 최근 미국 다우존스 주식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통화 당국간 정책 공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감지되자, 신흥국과 선진국 정상들은 지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진국은 출구전략의 신중한 추진을 약속하고, 신흥국들은 건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일부 취약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 당국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행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금융시장

-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 및 경제 펀더멘털 양호. 우리나라의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등은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수준이며,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신흥국 대비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파급 영향을 보면 첫째,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타신흥국 대비 건실한 거시경제여건으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원화 가치가 절상되고, 특히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부각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식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타신흥국 대비 강한 경제 기초체력으로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은 확대되고, 이는 국내 주식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자금이 국내 증시를 상승시키고, 위축된 개인들의 주식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물 부문

- 첫째, 미국 및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출구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졸업과 함께 미국의 경제회복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 이후 미국 경기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이러한 미국 경기의 회복은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견인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이 예상된다. 둘째, 국내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기회복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미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경우 대세계 수출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대선진국 수출 증대와 더불어 중국 및 아세안 등 신흥국의 수출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출 확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향후 미국 GDP 성장률이 1%p 상승하는 경우 국내 대미 수출은 2.97%p, 국내 전체 수출은 1.40%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종합 평가 및 대응 과제

- (종합 평가) 미국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은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조 등으로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시장은 해외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 과제) 첫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가 간 교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내외 자본 유출입 상황과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G20에서 합의한 통화 당국간 공조 체제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 당국간 협력 및 신속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원화 가치 상승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에 의한 원화 가치 절상에 대비하여 환율 미세조정 등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과 세계 경기 회복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미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 수출 업체에 대한 FTA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응한 국내 투자의 선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금리 상승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임희정 연구위원 외 (limhj9@hri.co.kr, 2072-6218)

□ 이슈: 인생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

□ 요약

인생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일단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식주의 변화 등으로 점점 최빈사망나이가 90세에 접근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명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수명이 연장되므로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며, 무엇보다도 노년기에 은퇴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대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 경제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갖는 구속력으로 인해 다른 가치들은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성과와 업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지배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식 또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왔다.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것은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체제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삶의 방식이 지배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래되는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맞이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훨씬 더 불안한 시선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계층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 양면성을 갖게 된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단일하기보다는 중층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가 새로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에 관한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례를 참조하되 종합적인 조망을 하는 긴 호흡에 의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설계에 따른 실천 역시 후대에게는 전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둔 인생 설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력에 의해 살아온 세세한 삶을 기억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공동체적 삶의 비전을 그 설계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일차적으로 직면하고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노년이다. 따라서 그 경험의 밀도는 노년이 제일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년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도까지 일차적으로 노년에서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긴 호흡 속에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노년에 직면하는 문제를 노년에게 모두 일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위기를 집합적으로 감당해내려는 시도를 하고, 그 시도는 먼저 지역에서 시작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다시 중앙정부를 통해 수렴해 나가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수명의 연장

○ 최빈사망나이가 90 세가 되는 시대

- 의료기술의 발달, 의식주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연령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연령이 90세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최빈사망나이가 90 세가 된다는 것은 100 세 이상 사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최빈사망나이가 90 세가 되면 치명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사고가 없는 한 적어도 90 세까지는 산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음

○ 높아지는 생존 확률

-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이나 심각한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료가 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이 계속 변화될 수 있음
- 의료보험이 어떻게 뒷받침되는가에 따라 당사자에게 생존이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

○ 경제활동의 연장

- 한 번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함
-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에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음
- 한 번 퇴직하고 여가생활에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일하면서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됨
-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한 자금을 비축해 두었거나 자녀가 온전히 부양하거나 국가에서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이상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함
-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경제 부문에서 한 번 퇴직한 이후에는 수익이 적은 주변부에 머물게 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확률은 더 높아짐
-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빈곤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노년기에서 은퇴 이후 기간의 증가

- 노년기에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은퇴를 해야 하는데 은퇴 이후의 기간은 점점 늘어나게 됨
- 노후를 위한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은퇴 이후 생활에도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퇴 이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됨
- 홀로 외롭게 사는 노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삶의 방식 변화

○ 생산성이라는 척도에 의한 평가

- 삶은 대단히 중층적이지만, 근대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 생산성의 정도라는 단일 척도에 의해 평가하는 지배적인 경향이 나타남
 - 사람의 가치는 다양한 척도에 의해 가능될 수 있고, 그 가치들은 인간이 고유하게 드러내고 구현해 온 것이기도 함
 -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산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둘 때 인간의 가치들 중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전면부각됨
 - 사람의 경제적 가치는 그의 생산성 정도에 비례하므로 생산력이 떨어지면 자연히 그의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게 됨
 - 이러한 맥락에서 인생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노년기까지 인간이 경제적 가치에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사람의 다른 가치들에 대한 고려는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됨

○ 개별성의 강조

-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업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일반화되어 있음
 - 집단 속에서 언제나 개인의 위치와 위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게 됨
 -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짐
 - 인생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삶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식 또는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음

○ 삶의 불안정성 증가

-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 젊은이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성년과 노년의 삶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음
 -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각 개인의 불안감 역시 증가하게 됨
 - 인생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오래도록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삶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불안감의 지속은 여러 차원에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체제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적응적 삶의 비중 증가

- 생산성이라는 척도에 의한 평가, 개별성의 강조, 삶의 불안정성 증가는 결국 사람들의 삶을

수동적이게 몰아갈 수 있음

- 시장경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 담 때문에 그 위험을 분산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 개인의 주도성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비중이 커지는 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됨
- 삶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흐름에 수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적응시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을 선호하게 됨
- 인생 100 세 시대가 된다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소외된 삶을 오래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삶에 대한 설계의 변화

○ 현상의 양면성에 따른 차이

-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에게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님
 - 노년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거나 노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100 세 시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맞이할 수 있음
 -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온 경향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람의 성취는 개인적 성취라기보다는 세대적 성취라고 할 수 있음
- 이제 사람들은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고 있고, 그 가능한 삶의 양태를 볼 수 있게 되었음
 -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구조의 문제가 될 때 가능한 대안의 선택지가 적다는 한계가 있음

○ 현상의 중층성에 대한 고려

- 어떤 현상도 보는 관점 또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게 되므로 단일한 조망보다는 종합적인 조망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인생 100 세 시대의 도래로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중층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차원 중 하나가 경제적 차원이므로 경제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현상의 중층성을 놓칠 수 있음
 - 한 차원에서 접근할 때 다른 차원을 놓치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전례를 참조하는 긴 호흡의 설계

-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전례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인생 100 세 시대의 도래를 겨냥하고 있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에 기초한 전문적인 담론들도 증가하고 있음
- 삶의 세부사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와 담론에 대해서는 읽거나 경청하고 검토하고 참조하는 자세가 필요함
- 자신의 삶이 후대에게는 또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설계과정에 포함됨
- 나서 성장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은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교육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 이후에 살아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국면들이 삶 속에서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함
- 모든 것이 설계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성찰을 통해 설계는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체적 삶의 비전

-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복원하는 설계가 필요함
 -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가 그의 집안의 세대적인 성취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이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순전히 수단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갖는 한계는 극복되어야 함
 - 공동체적 삶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소수자들에 의해 꾸준히 모색되어 왔고 실험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가치를 삶에 대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 됨

□ 구성하는 현실

○ 노년부터 변화 시도

- 노년이 살아가는 삶이 후대에게는 모두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노년이 현실을 대처해 나가면서 시도하는 변화는 다 의미가 있음
 - 인간은 인간의 삶 자체를 교육의 자료로 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
 - 노년의 다양한 삶에 대한 검토를 통해 후대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그 자체로 교육자료로서 의미가 있음
 - 노년이 살아가는 삶, 대처해 나가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밀도는 노년이 강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년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이것은 노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노년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년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노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 삶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

- 삶에는 언제나 우여곡절이 있으며, 누구의 삶도 그 자체로 가벼운 삶은 없음
 - 현재의 삶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으로서 그렇게 된 것임
 - 개인적인 선택이든, 제도적인 조치로서의 선택이든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은 변화됨
 - 이것은 과거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역사는 현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인생 100 세 시대에 사는 삶의 긴 호흡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도 긴 호흡의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위기의 집합적 감당

- 무역을 다변화하고 투자를 하되 분산투자를 하는 것처럼 예상되는 위기를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 집합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한 사례들이 있으며, 그 하나의 원칙은 위기를 집합적으로 감당하는 것임
 - 이것은 지배적인 위치에서 소수자들 또는 약자들에게 위기를 분산시켜 전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
 -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함축하고 있음

○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역을 넘어서서

-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그 문제를 지역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어떤 문제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인생 100 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님
-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 내의 문제 역시 해당 지역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동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다시 중앙으로 수렴해 나가는 Bottom-Up 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윤여각 (02-3668-4668, ykyun@knou.ac.kr)

□ 洗心錄

□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프랑스와 한국은 너무 다르다. 프랑스의 법무부 장관이 독신 여성이었는데 출산 휴가를 떠났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휴가에서 복귀한 후 다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일부 잡지에서 잠시 가십거리가 되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와 전혀 다르다. 며칠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하고 말았다. 당사자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떠밀려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왜 공직자에게 사생활이 왜 없을까?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오랫동안 은퇴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국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다. 얼굴이 다 알려져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인터넷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일반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유명인에게는 유명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도 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토론 문화에 익숙하도록 길들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토론식 수업보다는 일방적 전달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미국에서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칭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이상한 아이로 찍혀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쓸림현상이 강하다. 집단에 속하면 편하게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개인적 의견과 다양성은 무시당하기 쉽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적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해지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꽃피게 되고, 머지않아 선진국 도약도 가능해진다.

無不敬(무불경)

세상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존경의 대상이다.

- 예기(禮記)

□ Book Review

- 제목: 메이커스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사람들)

- '제조자 운동'(Maker Movement), '제조업의 디지털화'의 특징
- ① 과거의 대량생산에서 개인형 맞춤 생산이 가능해짐
- ②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디어를 공유, 이를 통해 제품의 질 향상
- ③ 공장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 ④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거대 자본 없이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⑤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 (발명품이 수익으로 직결)

- 저자: 크리스 앤더슨 (Chris Anderson)

- 현 3D 로보틱스에서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
- 2007년「타임지」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공짜경제학 창시자
- 주요 저서 : <<롱테일 법칙>>, <<비트 경제와 공짜 가격이 만드는 혁명적 미래, 프리>>

○ 주요 내용

- (발명가가 기업가인 시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쉽게 기업가로 활동할 수 있고, 인터넷의 발달은 발명도구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민주화'에도 기여
 -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수많은 기업가가 DIY(do-it-yourself) 정신을 산업단위로 승화한 '제조자 운동(makers movement)'을 펼침
 -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혼자 일했던 제작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아이디어는 공유되고, 더 큰 아이디어로 발전'되기에 이름
- (새로운 산업혁명) 이제 모든 상품은 컴퓨터 모니터상의 디자인에서 제조가 시작되고, 모든 디자인은 디지털 파일로 온라인에서 공유
 - 지난 10년의 혁신 : 웹에서 창조하고, 발명하고,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
 - 향후 10년의 혁신 :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현실세계에 적용
 - Makers movement의 세 가지 특징 : 첫째, 디지털 DIY-데스크톱 디지털 도구 사용,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 작업 문화, 셋째, 디자인 파일 공유-아이디어의 제품화 경로 대폭 단축

- (세상을 바꾼 데스크톱 혁명) 데스크톱 프린터의 보급과 광범위한 웹의 보급으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 언론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기술이 대중화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스크톱의 발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음
- (사물의 룩테일 혁명) '웹'의 발전으로 특정 기업, 국가, 단체가 독점하고 있던 산업이 일반인에게 넘어가 특별한 변화가 발생
 - 20세기에는 상점이라는 전통적 유통체제로 인해 '유통량'이 제한된 반면,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훨씬 다양하고 극소수만 찾는 '맞춤형 상품'까지 팔 수 있게 되었음
- (제조에 기여하는 혁신적 도구) 3차원 프린터, 레이저 커터, 3차원 스캐너를 주목해야 함
 - 이미 치아 교정 장치, 의족, 의치 등에는 3차원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2015~2025년에는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혁신적 기술이 될 수 있음
- (개방형 혁신 커뮤니티)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돈을 내가면서 제품 개발을 도와주려는 시장의 확대가 오픈 하드웨어의 궁극적인 미래
 - 개방형 혁신 기업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 타인과 성과를 공유하고, 결과적으로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나은 연구개발이 가능함
- (재탄생할 공장의 미래) 제조자 운동의 성공 여부는 가장 큰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관건
 - 로컬 모터스 공장(고객이 물건을 주문한 후 제작), 테슬라 전기 자동차 공장(디지털 제조 기술의 힘으로 운영)이 미래 모든 선진국 제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
- (자금조달을 위한 협업) '킵 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은 제조자 운동을 위한 벤처 캐피털이며, 이는 자금조달을 넘어선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
 - 새로운 투자자 계층은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제품,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제품의 아이디어에 투자
- (21세기 제조업의 미래) 블록버스터 상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버스터 상품의 독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
 - 디지털의 발전에 따른 제조자들의 증가로 거대 제조업 기업의 독점이 사라질 것임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영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영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